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Home Environmental Stimuli and Mothers' Personal variables in
multicultural Family on their Children's Linguistic Abilities

오성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Seong-Sook Oh(ohss1054@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먼저, 어머니 개인변인에서는 의사소통수단(주로한국어)과 유아 언어능력(수용언어, 표현언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환경자극에서는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의 조직과 유아의 언어능력(수용언어, 표현언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언어능력이 어머니의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자극 중에서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수용언어에서는 가정환경자극 하위변인 중에서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의 조직, 표현언어에서는 가정환경자극 하위변인 중에서 물리적 환경의 측면이 영향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다문화가정 | 어머니 개인변인 | 가정환경자극 | 언어능력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al stimuli and mothers' personal variables in multicultural family on children's linguistic abilitie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132 infants and their mothers of 82 infant education institutes located in P city.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s of communication (generally Korean) is found to have the greatest effect on children's linguistic abilities of the personal variables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econd, the formation of stable and predictable environments affects children's linguistic abilities (receptive and expressive language) most of all the home environmental stimuli. Third, children's receptive language was most affected by the formation of stable and predictable environments, and their expressive language was most affected by the aspects of physical environments.

■ keyword : | Multicultural Families | Mothers' Personal Variables | Home Environmental Stimuli | Linguistic Abilities |

I. 서론

유아의 언어습득 및 언어발달은 다른 행동 특성과 마찬가지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하며 특히, 유아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유아가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유아의 언어 능력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16]. 어머니의 언어적 자극과 유아의 언어습득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의 양과 질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 연령 등의 인구론학적 변인과 유아의 초기 어휘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16][18-20][24]. 또한, 유아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환경 내에서 주어지는 동적이며 심리적인 것이고 물리적인 상태 등 자극의 다양성과 정도에 따라라도 밀접한 관련이 많음을 입증하고 있다[15][22][35]. 즉, 유아들의 발달을 돕는 다양한 감각적 경험이나 자극, 자료와 어머니가 제공하는 언어적 자극, 정서적이고 온정적인 분위기 등 가정환경의 직, 간접적인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유아의 언어능력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는 어떤 형편인가? 우선 언어 형태면에서 부모 간 주 사용 언어가 상이함으로써 인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는 한국어 사용이 서툴러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거나 문화 차이로 인한 가정생활의 많은 갈등과 어려움 등이 자녀의 언어발달에 필요한 한국어로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한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성장 후 언어적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이전부터 언어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활동 강화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1][14][27]. 그러나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인 초기 가정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환경자극들이 언어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유아들의 언어발달을 위해 다문화가정에서 제공되는 환경자극은 어떠한가를 논의해 볼 수 있는 있는 연구들은 아직 많이 미흡

한 상황이다. 이에 일반가정과는 다른 언어 환경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의 여러 요인들 중에 유아의 언어능력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언어발달 예방과 지원 기반을 모색하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다문화가정의 어머니 개인변인이 유아의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둘째, 다문화가정의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고찰

어머니의 개인배경의 다양한 요소들 즉,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수준, 직업유무, 연령 및 유아에게 제공되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과 질과 유아의 언어능력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 언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어머니의 사회수준과의 관계에서 Hart와 Risely(1992)는 학력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한 시간에 2100 단어를 듣지만, 경제, 사회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부모의 자녀들은 시간당 600단어를 듣게 되어 언어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이정주(2000)는 학력이 높은 부모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아의 언어 능력이 높고 아버지의 학력보다 어머니의 학력이 유아의 언어적 환경과 언어 능력에 더 높은 상관에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이숙영(2000)은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언어발달과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35세 이하, 전문대졸이상, 전업주부일 때 유아의 언어 능력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부모의 언어 사용,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학력이 낮은 부모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중 언어발달과 환경 변인간의 인과모형을 설정한 이정애(1975)는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즉, 사회계층, 가족 수, 지역사회 차이, 자녀양육태도, 자극환경, 어머니의 언어수준, 아동의 지능 등의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언어발달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어머니의 언어수준, 자극환경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자녀의 주 양육을 맡고 있는 어머니의 배경은 유아의 언어발달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유아와 어머니의 생물학적인 의존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유아는 그의 최초의 주위세계에 관한 정보를 어머니와의 관계로부터 얻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가정환경과 관련된 변인과 유아의 언어능력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크게 구조적인 환경측면(structural environment)과 과정적 환경측면(process environment)로 나누어 볼 수 있다[25]. 이 중에서도 과정적인 환경으로 물리적인 상태, 가정에서 주어지는 자극의 다양성과 정도,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종류, 언어적 환경, 유아의 허용되는 활동범위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아의 언어능력의 강력한 예언력을 가지는데 특히, 부모가 제공하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 유아의 언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22].

또한, 가정환경의 구조적인 환경에 관한 김미란(1989)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발달은 가정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변인들 중에서도 가정 내의 놀이자료나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조직이라고 밝히고 있다. Bradley 등(1989)의 연구에서도 영아기 동안 인지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정환경 변인은 어머니의 반응성과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 상태였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영아의 발달 상태나 환경의 질적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진향(1993)연구에서도 가정 내의 풍부한 놀이자료, 발달을 돕는 자극, 창의성을 격려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Bradley와 Caldwell(1976)의 연구에서는 4년 6개월된 유아의 초기 가정환경과 언어, 지능과의 관계를 49명의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결과는 초기 2년 동안에 유아에게 유용하고 다양한 환경자극, 즉 어머니의 정서적이고 언어적인 응답과 적절한 놀이 자료의 제공, 언어적인 자극 등은 특별한 언어능력의 지속적인 발달과 형성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인 성취기대를 하고 유아와 자주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감정적인 요구에 응답해 주는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환경 안에서 신뢰감과 즐거움을 발달 시키기에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같은 능력이 원동력이 되어 유아의 언어 발달 및 인지적 성장을 돕는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어머니를 비롯한 가정환경의 여러 변인은 유아의 언어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세계가 지구촌화 되고 정보 교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다문화가정 내 유아들의 이중언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의 언어환경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형태와 언어학습 정도에 따라 부모간, 부자간 혹은 모자간 사용 언어의 상이함은 유아의 말하기에서는 또래에 비해 미숙한 발음과 침묵, 자기표현을 하지 않고 눈과 고개의 제스처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듣기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읽기와 쓰기는 문해활동 관련에서 기피하고 글자를 바르게 쓰지만 읽기 못하는 특이한 언어형태를 보인다고 하였다[8].

농어촌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학 수준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이해언어에 어려움을 있었고, 표현 언어는 68%의 유아가 지체가능성을 보인다고 하였다[26]. 결국, 어머니가 언어습득을 위한 세심한 언어환경을 주지 못해 유아들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개념 습득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9]. 또한, 설동훈(2005)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낮은 경제력으로 부모가 밤늦게 까지 일을 하고 어머니의 한국어가 서툴러 유아가 바람직한 언어모형을 제공 받지 못하고 언어적 자극을 받지 못해서 오는 자녀의 언어습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05)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발달이 지체되어서 학습의 이해도가 낮고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홍영숙(2007)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만4세 유아가 말을 못하고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어머니의 한국어 부재로 유아의 언어습득 시기인 결정적 시기를 놓쳐 일어나는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양육을 하다보면 자녀들은 언어문제를 비롯한 학습부진, 소극성, 자신감 부족, 사회성 결여, 편견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9][12][14].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P지역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 유아 중 본 연구에 참여 동의를 밝힌 82개 유아교육기관의 유아 132명과 그들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에 포함된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
유아	연령	3세(42개월)	20 15.1
		4세(55개월)	43 32.6
		5세(67개월)	69 52.3
학력		중졸이하	25 18.9
		고졸	56 42.4
		대졸이상	51 38.6
어머니	연령	30세이하	22 16.6
		30-35세	66 50.0
		35세이상	44 33.3
국적		베트남	16 12.1
		태국	15 11.3
		중국	47 35.6
		필리핀	37 28.0
의사소통 수단		일본	17 12.8
		한국어	62 47.0
		한국어>모국어	49 37.1
		한국어<모국어	21 15.9

2. 연구 도구

2.1 유아 언어능력 측정 도구

유아의 언어능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언어 발달 검사도구인 취학전 아동용 수용언어 /표현언어 발달척도를 사용하였다[5]. 이 척도의 문항내용은 인지개념 및 의미론적 언어능력 41문항, 음운 및 구문론적 언어능력 37문항, 화용론적 언어능력 12문항,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각각 45문항으로 총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백분위 점수 환산표 제시된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의 점수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99점까지이다. 측정도구 신뢰도Cronbach' α는 수용언어 .95, 표현언어 .95이다.

2.2 가정환경자극 검사 도구

가정환경자극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은혜, 장영애(1982)의 가정환경자극검사(HOME)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대학원 이상의 유아교육 전문가 5명을 통해 검사도구의 내용을 재분석하였으며 내용타당도는 95%였다. 검사도구 내용 및 문항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가정환경자극검사의 하위변인 및 문항수

하위 변인	내용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 α 계수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의 조직	일정한 소수 성인과의 빈번한 접촉	7	1-6	.82
발달을 돕는 자극	자극과 반응이 풍부한 사회적 학습환경 제공	14	20,22,24-25, 49,52-57, 101, 102	.92
언어적 환경의 질	다양한 형태의 언어적 상호작용	11	8, 18-19, 23,50-51, 96,103, 104-106	.87
허용성	탐구적인 시도에 불필요한 제지가 적은 것	14	11,46-47,59, 60, 90-95, 107-109	.79
독립성의 육성	스스로 행동을 고치는데 유용한 자료나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것	18	9-10,12-17, 44 58, 63, 70, 85-89	.76
정서적 분위기	사람과 긍정적이고 신뢰성있는 관계	17	48,82-84, 110-122	.85
경험의 다양성	다양한 문화적 경험제공	19	61-62, 64-69,71-81	.88

물리적 환경의 측면	다양한 감각경험을 포함하는 공간과 비품	18	43,97 98-100 123-135	.77
놀이자료	일정한 종류의 놀이자료	17	26-42	.93
계		135		.96

2.3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

어머니 개인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작하였다[1][4][30]. 검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 10명과 그 자녀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의 담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발송하여 회수된 질문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신뢰도는 85%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시교육청 및 시청 다문화 관련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82개 유아교육기관의 장에게 유아에 대한 검사 허락과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실시되었다. 모든 검사와 조사는 연구도구와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학생이 각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실시하였다. 조사 시간은 유아 1인당 약 25분~3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어머니 개인배경 및 가정환경자극 질문지는 어머니 1인당 4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어머니가 한국어 사용이 매우 서툴러 조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기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고,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능력을 설명하는 설명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한편 모든 통계 검증은 유의수준 .05에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표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이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언어	회귀계수 독립변인	비표준 회귀계수	표준 회귀계수	t	Model Summary			ANOVA F (df)
		B	β		R	R ²	조정 R ²	
수용 언어	(상수)	8.805		4.382***	.253	.064	.034	3.712** (4,131)
	연령	-.861	-.076	-.880				
	학력	1.782	.163	1.872				
	의사소통수단(주요한국어)	2.982	.194	2.554**				
표현 언어	소득정도	.983	.078	.910	.369	.136	.109	4.992*** (4,131)
	(상수)	6.713		3.862***				
	연령	-1.984	-.196	-2.354**				
	학력	1.802	.183	2.183*				
	의사소통수단(주요한국어)	2.404	.184	2.183*				
	소득정도	1.612	.143	1.734				

* p< .05. ** p< .01. *** p< .00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이 유아의 언어능력을 설명하는 설명량을 살펴보면, 먼저 유아의 언어능력 중 수용언어를 설명하는 설명량을 살펴보면, $R^2=.064(F=3.712, p<.001)$ 으로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수용언어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의사소통수단(주요한국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수단(주요한국어)($\beta=.19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소득정도'는 수용언어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이 유아의 언어능력 중 표현언어를 설명하는 설명량을 살펴보면 $R^2=.136(F=4.99, p<.01)$ 으로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표현언어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연령'와 '학력' 그리고 '의사소통수단(주요한국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측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beta=.196$), 의사소통수단(주요한국어)($\beta=.184$), 학력($\beta=.18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의 회귀계수는 1.80으로서 $t=2.18, p<.05$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수단(주로한국어)’의 회귀계수는 2.40으로서 $t=2.18, p<.05$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정도’는 표현언어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정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가정환경자극의 하위변인이 유아의 언어능력을 설명하는 설명량을 살펴보면, 먼저 유아의 언어능력 중 수용언어를 설명하는 설명량을 살펴보면 $R^2=.569(F=17.764, P<.001)$ 으로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수용언어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과 ‘정서적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측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beta=.548$), 정서적 분위기($\beta=.230$)순으로 나타났다. 즉 본 회귀식의 상수 값은 -3.82이며,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의 회귀계수는 2.48으로서 $t=5.19, p<.001$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적 분위기’의 회귀계수는 .409으로서 $t=2.27, p<.01$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발달을 돕는 자극’, ‘언어적 환경의 질’, ‘허용성’, ‘독립성의 육성’, ‘경험의 다양성’, ‘물리적 환경의 측면’, ‘놀이자료’는 수용언어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가정환경자극의 하위변인이 유아의 언어능력 중 표현언어를 설명하는 설명량을 살펴보면, $R^2=.685(F=29.205, p<.001)$ 으로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표현언어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과 ‘정서적 분위기’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측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측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beta=.391$), 물리적 환경의 측면($\beta=.367$), 정서적 분위기($\beta=.235$)순으로 나타났다. 즉 본 회귀식의 상수

값은 -5.112이며,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의 회귀계수는 1.59으로서 $t=4.33, p<.001$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적 분위기’의 회귀계수는 .375으로서 $t=2.71, p<.01$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경의 측면’의 회귀계수는 .643으로서 $t=3.47, p<.01$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발달을 돕는 자극’, ‘언어적 환경의 질’, ‘허용성’, ‘독립성의 육성’, ‘경험의 다양성’, ‘놀이자료’는 표현언어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다문화가정의 가정환경자극이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언어	회귀계수	비표준 회귀	표준 회귀	t	Model Summary		ANOVA
		계수	계수		R R ²	교정 R ²	
수용 언어	독립변인	B	β				
	(상수)	-3.822		-2.473**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	2.482	.548	5.192***			
	발달을 돕는 자극	-.009	-.007	-.058			
	언어적 환경의 질	-.065	-.028	-.263	.754		
	허용성	.019	.009	.089	.569	.537	17.763*** (9,131)
	독립성의 육성	.199	.154	1.113			
	정서적 분위기	.409	.230	2.273**			
	경험의 다양성	.153	.092	.842			
	물리적 환경의 측면	-.102	-.052	-.423			
놀이자료	-.124	-.103	-.743				
표현 언어	(상수)	-5.112		-4.293***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	1.593	.391	4.333***			
	발달을 돕는 자극	.042	.036	.373			
	언어적 환경의 질	.038	.018	.199			
	허용성	-.122	-.064	-.725	.828		29.205*** (9,131)
	독립성의 육성	-.097	-.083	-.703	.685	.661	
	정서적 분위기	.375	.235	2.713**			
	경험의 다양성	.039	.026	.275			
	물리적 환경의 측면	.643	.367	3.473**			
	놀이자료	.013	.012	.098			

** $p<.01$. *** $p<.001$

3.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 자극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자극의 하위변인이 유아의 수용언어능력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수용언어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인은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B=2.63, t=8.28, p<.001)과 정서적 분위기(B=.450, t=3.74, p<.001) 그리고 주로한국어 의사소통(B=2.63, t=3.62, p<.01)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β =.579), 의사소통수단(주로한국어)(β =.253), 정서적 분위기(β =.2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설명량은 57.1%(R^2 =.571)이며, 회귀분석의 최종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살펴보면 회귀식($F=135.3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다문화가정의 어머니 개인변인 및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능력의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언어	회귀계수 회귀 계수	비표준 회귀 계수	표준 회귀 계수	t	Model Summary			ANOVA
					R	R ²	조정 R ²	F
수용 언어	독립변인 (상수)	-3.881		-3.475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	2.633	.579	8.284***	.756	.571	.564	135.395*** (3,131)
	정서적 분위기	.450	.238	3.743***				
	의사소통수단 (주로한국어)	2.633	.253	3.623**				
표현 언어	독립변인 (상수)	-4.773		5.213***				
	물리적환경의 측면	.591	.337	4.473***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	1.354	.332	4.732***	.835	.698	.688	172.214*** (4,131)
	정서적 분위기	.311	.195	3.074**				
	의사소통수단 (주로한국어)	2.432	.186	3.561**				

** p< .01. *** p< .001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 자극의 하위변인이 유아의 표현언어를 설명하는 설명량을 살펴보면, 표현언어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인은 물리적 환경의 측면(B=.591, t=4.47, p<.001)과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B=1.35, t=4.73, p<.001)과

정서적 분위기(B=.311, t=3.07, p<.01) 그리고 주로한국어 의사소통(B=2.43, t=3.56, p<.01)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물리적 환경의 측면(β =.337),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β =.332), 정서적 분위기(β =.195), 주로 사용하는 언어(β =.1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설명량은 69.8%(R^2 =.698)이며, 회귀분석의 최종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살펴보면 회귀식($F=172.21$,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개인변인이 유아의 수용언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수용언어에서는 어머니의 개인변인인 어머니의 학력, 의사소통수단(주로한국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표현언어에서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수단(주로한국어)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어머니의 연령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먼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 중에 어머니의 학력과 유아의 언어능력의 상관이 있음은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2][18][20].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 중에 어머니가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상관이 있음은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13][26][28].

이것은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용언어, 표현언어 능력에서 상관이 많은 것으로 가정환경에서 초기 언어자극의 양과 질이 중요함을 밝힌 연구과 맥을 같이한다[24][32][33][38][39]. 또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최연실(2007)과 정은희(2004)연구와도 일치한다. 유아는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적 상호작용

인 상호응시, 순서대로 말하기, 함께 주의를 기울이기, 상황 및 문화적 관례가 고려된 구체적인 언어 경험에 의하여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유아를 향한 언어(child directed speech)는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고려된 언어 경험들을 유아에게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주로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유아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은 유아의 언어능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한다.

둘째, 다문화가정에서 주어지는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유아의 언어능력(수용언어, 표현언어)에 있어서는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에서는 가정환경의 다양한 자극 변인 중에서도 유아의 언어능력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측정하는 것이 더 강력한 예언력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3][22][34]. 홍영숙(2007)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부부와 가족의 문화차이, 언어갈등, 생활습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도박, 가정폭력 등으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는 곧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제공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능력 중 수용언어를 설명하는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능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들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가 수용언어에서는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 주로한국어사용, 정서적 분위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향력이 설명하는 설명량은 57.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언어능력이 영향력을 주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측정하는 것이 더 강력한 예언력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3][22][34]. 이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 어머니를 비롯한 일정한 가족과의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분위기 속에

서 주로 한국어로 빈번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유아의 수용언어 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빠른 한국어 습득을 위한 한국어지원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자극의 하위변인이 유아의 언어능력 중 표현언어를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크기는 물리적 환경의 측면,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직, 정서적 분위기, 의사소통수단(주로 한국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향력이 설명하는 설명량은 69.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환경변인 중에서도 유아의 가정의 물리적 상태나 놀이자료 등이 언어 및 지적 능력에 상관이 높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22][35]. 이는 언어와 관련된 물리적 공간 속에서 어머니를 비롯한 일정한 가족과의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으며 긍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어머니가 주로 한국어로 언어적 자극을 주는 것이 유아의 표현언어 능력에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대부분이 낮은 경제력으로 부모가 밤늦게 까지 일을 하여 가정에서 유아가 부모로부터 바람직한 언어모델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고 언어적 자극을 받지 못해서 오는 자녀의 언어습득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를 볼 때 다문화가정의 물리적인 환경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11].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시사점과 결론을 제시 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 중에서도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과 가정환경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자극 중에서는 사회·정서적 관계와 함께 안정된 물리적 환경이 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에 매우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입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유아의 언어능력 과 관련하여 어머니 관련 변인에 비해 아버지 관련 변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된 선행연구[19][20]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정에서는 어머니 관련 특성으로만 국한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아버지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 구성원 및 유아교육기관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갑성, *한국 내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 김건환, *가정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언어능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어사회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3] 김미란,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의 언어능력 및 인지 양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4] 김영옥, “유아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이에 따른 양육태도”,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pp.143-164, 2008.
- [5]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 *취학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적 척도(PRES)*, 서울: 서울장애인복지관, 2003.
- [6] 김현숙, *유치원 교사의 과학교육 목표인식 및 교수유형에 따른 유아의 과학행동*,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7] 김이선,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 작용이 언어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8] 박미경, 엄정애,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아동학회지*, 제28권, 제2호, pp.115-136, 2007.
- [9] 박지윤, *이중언어환경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0]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2005
- [11] 설동훈,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 다문화주의 모형의 적용 가능성 탐색*,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비판사회학대회, 2005.
- [12] 서현, 이승은,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4호, pp.25-47, 2007.
- [13] 신혜정,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14] 오성배,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5.
- [15] 이영, “3세 이하 어린이의 가정환경과 발달수준과의 관계”, *연세논총*, 제17권, 제1호, pp.249-264, 1980.
- [16] 이은경, 석동일, “부모참여 유형별 언어장애 아동 부모교육 내용고찰”, *언어치료연구*, 제15권, 제4호, pp.183-201, 2006.
- [17] 이은혜, 장영애, *가정환경 자극검사(HOME)의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제10권, 제1호, pp.49-63, 1982.
- [18] 이숙영,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19] 이정애, *아동의 언어발달의 인과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 [20] 이정주, *부모의 학력 및 유아의 언어적 가정환경과 언어능력과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1] 이진향, *인지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언어능력 간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22] 장영애, “가정환경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인과모형 분석”, *아동학회지*, 제8호, 제2권, pp.17-44, 1987.
- [23] 장영애, “유아의 언어 능력과 환경변인 간의 관계분석 2-5세 유아를 대상으로”, *대한 가정학회지*, 제32권, 제3호, pp.171-184, 1994.
- [24] 장유경, 이근영, 곽금주, 성현란,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6호, 제4권, pp.227-240, 2003.
- [25] 정원식, 이상로, 이성진,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1980.
- [26] 정은희, “농촌 지역 국제 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제13권, 제3호, pp.33-52, 2004.

- [27] 조영달,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 용역 과제 최종 보고서,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2006.
- [28] 최연실, 도시 국제결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이야기 능력 비교,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9] 홍영숙,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문제와 시사점,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30] 홍달아기, 채옥희,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 실태와 갈등", 한국재활과학회지, 제15권, 제5호, pp.729-741, 2006.
- [31] B. Hart and T. R. Risley, "American parenting of language-learning children : persisting differences in family-child interactions observed in natural home environ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8, pp.1096-1105, 1992.
- [32] E. Hoff and L. Naigles, "How children use input to acquire a lexicon," *Child Development*, Vol.73, pp.418-433, 2002.
- [33] M. Bowerman and S. Choi,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determinants of spatial semantic development: A crosslinguistic study of english, korean, and Dutch, Paper presented at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1994(1).
- [34] R. Bradley and B. M. Caldwell,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 to mental test performance at fifty-four months : A follow-up study," *Child Development*, Vol.47, pp.1172-1174, 1976.
- [35] R. H. Bradley, B. M. Caldwell, and R. Elardo, "Home Environment and Cognition Development in the first 2 years: A cross lagged panel Analysis," *Development Psychology*, Vol.15, pp.246-250, 1989.
- [36] R. Bradley, B. M. Caldwell, S. Rock, C. T. Ramey, K. E. Barnard, C. Gray, M. A. Hammond, S. Mitchell, A. W. Gottfried, L. Siegel, and D. L. Johnson, "Home environ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first 3 years of life : A collaborative study involving six sites and three ethnic groups in Noeth America,"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5, pp.217-235, 1989.
- [37] S. Choi, "Caregiver input in English and Korean : use of nouns and verbs in book-reading and toy-play contexts," *Journal of Child Language*, Vol.27, pp.36-96, 2000.
- [38] S. Choi, and A. Gopnick "Earl acquisition of verbs in korean across linguistic study," *Journal of Child Language*, Vol.22, pp.497-529, 1995.
- [39] Y. Li, Y. Guan, S. Tao, and Q. Dong, "The development of emerging literacy in English among preschool children," *Psychological Science(China)*, Vol.28, No.6, pp.1361-1365, 2000.

저 자 소 개

오 성 숙(Seong-Sook Oh)

정희원



- 2009년 8월 : 대구대학교 유아교육학과(교육학박사)
- 현재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양상 및 교육